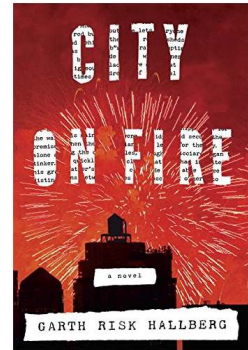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ITY ON FIRE
가제 : 불타는 도시
저자 : Garth Risk Hallberg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분량 : 944 페이지
장르 : 소설



방대한 분량, 200만 달러 계약 체결로 전 세계 출판계의 엄청난 주목을 받은 화제의 작품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 가득한 매력이 아직 자리잡지 않았던 뉴욕, 아이들이 타임스퀘어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1970년대 뉴욕은 어떤 모습일까? 900 페이지가 넘는 굉장한 분량과 뜨거운 경쟁 속에 200만 달러 규모의 출판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 출판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예 작가의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당시의 뉴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1977년 뉴욕에서 발생한 세계 최악의 정전 사태와 그 날 벌어진 약탈, 방화, 강도 사건들, 이스트 빌리지의 어느 버려진 주택 ‘수튼 플레이스’에서 생긴 미스터리한 사건, 센트럴 파크에서 일어난 충격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인 시대였다고 회상하는 70년대 뉴욕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뉴욕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막대한 유산이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웬지 선뜻 받기를 꺼려하는 두 상속자 리건과 윌리엄 해밀튼 스위니, 두 사람을 사랑하는 케이스와 머서, 낙후된 롱아일랜드에 살면서 당시 뉴욕에서 막 피어나던 펑크 문화에 압도된 십대 청소년 찰리와 사만다, 집착이 강한 어느 잡지 기자와 그의 이웃, 촌구석으로 불리던 조지아에서 학교 교사로 일하는 동성애자가 얽히기 시작한다. 이들은 모두 센트럴 파크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과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한 탐정이 이들 모두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뉴욕과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에게는 인종과 돈 문제로 분열된 당시 사회 모습, 그리고 변화의 흐름이 거세게 불던 뉴욕 곳곳의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형성된 문화와 경제위기는 늘 인파로 북적이는 뉴욕 중심가는 물론이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둡고 구석진 곳까지 그 영향력을 떨쳤다. 그리고 1977년 7월 13일에 발생한 세계 최악의 정전은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 있던 모든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는 분기점이 되어버렸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다.

70년대 ‘빅 애플’ 뉴욕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 최악의 정전 사태와 그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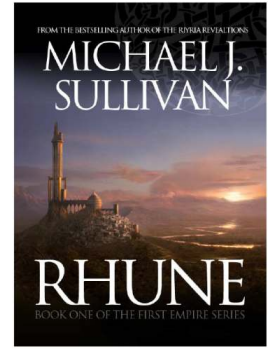
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던 날, 에어컨 바람 없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던 뉴욕의 그 밤이 지옥보다 무서운 공포의 시간으로 탈바꿈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에 전기를 공급하던 발전소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전력망이 마비되고, 이미 깜깜해진 저녁 8시가 넘은 시각부터 도시 전체는 암흑천지가 되어버렸다.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은 허공에서 무작정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 TV, 라디오 방송은 먹통이 되고 응급 수술을 받던 수많은 환자들은 손을 쓸 수도 없이 사망하고 만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사태는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컴컴한 암흑 속에서 상점을 습격하고 물품을 약탈하는 절도가 시작되더니,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범죄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시 곳곳에서 상점이 부서지고, 물건이 도난 당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도난이 줄을 잇는다.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몰려들어 미친듯이 물건을 집어가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 다시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불과 하루 만에 시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바뀌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여파로 경제가 파탄직전에 내몰린 상태였고, 증세와 물가 상승으로 실업자는 넘쳐나고 시민들의 경제 사정은 최악으로 내몰렸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것이 정전이라는 돌발 사태 속에서 폭발해버린 것이다.

여러 인물들이 펼치는 사랑과 배신, 용서, 예술과 진실, 그리고 락큰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엇이 진정 인간다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가디언>은 이 작품을 ‘2015년 문학 캘린더’에 등재했고 <선데이 타임즈>의 문학 평론가 앤드류 홀게이트는 2015년 가장 기대되는 도서 10권의 하나로 꼽았다.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상상력과 생생한 인물들,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토리라인에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미국에서의 체결된 거대한 출판 계약에 이어 영국에서도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저자 소개>

가스 리스크 홀버그(Garth Risk Hallberg)는 <뉴욕타임스>, <슬레이트>, <LA 타임스>, 온라인 문학잡지인 <더 밀리언스>에 도서 리뷰와 에세이를 게재해 온 작가로 장편소설은 위 작품이 데뷔작이다. 2007년 발표한 중편소설 《A Field Guide to the North American Family》로 ‘빌리버 도서상(Believer Book Award)’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 : RHUNE
가제 : 룬
저자 : Michael J. Sullivan
출판사: Del Rey
발행일: 2016년 여름
분량 : 338 페이지
장르 : 소설



<포브스>지가 ‘판타지 킹’으로 극찬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선보이는 초대형 환타지 시리즈

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면? 머나먼 옛날 ‘룬(Rhune)’의 땅. 나무가 미래를 예견하고, 사람을 먹여치우는 괴물 ‘라오’가 밤마다 침대 밑에 자신이 해치운 사람의 뼈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숲에 숨어 살며 아이들을 훔치는 괴상한 존재 ‘크림발’이 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 룬의 땅에서 ‘신을 죽인 자’의 전설과 복수의 씨앗이 되살아나 누가 진정한 신인지 가려내기 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신들의 아버지 에레부스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메리보, 드롬, 페롤 세 아들들은 인간, 난쟁이, 엘프 종족을 구성하며 각자 한 사회를 이끌었고 딸 유리엘은 동물과 식물을 창조했다. 그러나 만취한 에레부스가 딸을 겁탈하는 흉측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세 아들은 아버지와 등을 지고 살기 시작하지만, 아버지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에레부스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대한 끝없는 후회 속에 딸에게 용서를 빌고, 유리엘은 그에게 신의 능력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한다. 또한 그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되면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에레부스가 그녀에게 용서를 받고 아들들과 화해하면, 분립된 각 신들의 사회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세 종족은 자리에서 내려온 에레부스 대신 이 세상을 지배하려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다. 총 다섯 권의 시리즈로 완성될 ‘태고의 왕국’ 시리즈 제 1편 ‘룬’에서는 에레부스의 아들 메리보가 만든 인간들의 땅 ‘룬’과 페롤이 세운 엘프의 땅 ‘프레이’의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에레부스가 모든 힘을 버린 후, 프레이는 엘프 특유의 긴 수명과 마법 능력 덕분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프레이의 통치는 산산히 부서지고 만다. 프레이 종족 중 하나가 죽어서는 안 될 ‘룬’의 신을 죽이고 만 것이다. 룬의 종족인 인간들은 일제히 응징에 나서지만, 프레이의 반격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지상 전체가 파괴된다. 처참한 패배를 맛본 인간들은 어느 종족들보다 뛰어난 기술과 마법을 지닌 엘프들을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프레이의 통치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신이 사라진 세상,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과 엘프의 전쟁과 전설, 진정한 신을 찾기 위한 모험

프레이의 치하에 살아야 했지만, 같은 인간을 대량 살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무리의 인간들은 도망자가 되어 '달 렌'이라는 작은 마을에 숨어들고, 뜻밖에 자신들을 환영하는 이들과 만난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나이프런이 이끄는 교회 세력이었다. 프레이 치하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를 다시 하나로 규합하려고 애쓰는 세력이었다. 언뜻 넓은 야망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나이프런은 사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룬 출신의 인간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일, 즉 프레이 종족을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야욕을 감추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나이프런이 준 임무대로 프레이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룬의 사람들. 이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거세지자 프레이의 공식적인 반격도 시작된다.

위대한 능력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영웅이 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주인공들의 활약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소위 '영웅'이라 불리는 인물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된다. '태고의 왕국' 시리즈에서는 작가의 전작인 《The Riyria Revelations》 시리즈에 등장했던 세 종족들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맨 처음 왕국이 설립된 역사와 전설을 이야기한다. 전작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와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 종족의 방대한 전투와 음모, 역사가 펼쳐진다. 거대한 판타지 대서사시의 서막을 알리는 '태고의 왕국' 첫 권 '룬'은 Del Rey에 50만 불 이상에 계약되었다.

<저자 소개>

마이클 J. 설리반(Michael J. Sullivan)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서사 형태의 판타지 소설과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작가로, 데뷔작인 《The Riyria Revelations》는 영어로만 50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13개 언어로 번역됐다. <Library Journal> 선정 가장 기대되는 작가로 선정됐고 '아마존' 판타지 작가 TOP 100에도 포함되었으며 위 데뷔작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평단의 극찬을 받아온 작가이다.

제목 : FROM THE DUST RETURNED

가제 : 먼지 속에서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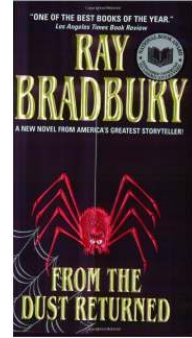
저자 : Ray Bradbury

출판사: Avon

발행일: 2002년 9월 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몇 백 년을 살아온 이상한 가족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들의 기묘한 삶

일리노이 북부, 온갖 전설과 미스터리가 전해지는 한 주택에는 몇 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여느 주민들과 확연히 다른 이 식구는 낮에는 도통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하지만, 나이가 많은 식구 중에는 스프링크스가 이집트 모래 사막에 맨 처음 앞발을 내려놓은 시절부터 생존한 사람도 있다. 뚜껑이 달린 침대에 누워 계속 잠만 자는 식구도 있다. 그런데 늘 고요하던 이 요상한 집이 웬일인지 떠들썩하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기로 한 것이다.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는 변신의 귀재부터 텔레파시 전문가, 몽유병 환자들, 심지어 뱀파이어까지, 별나고 기괴한 먼 친척들이 하나 둘 이 저택으로 모여든다.

모두의 눈을 휘둥그래지게 만드는 놀라운 상상력 속에 탄생한 이 섬세한 등장인물들은 작가가 1940년대에 처음 발표한 단편 판타지 작품에 등장했던 엘리엇 가족의 매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디애나의 빅토리아 시대 풍 성에 사는 뱀파이어들과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들에 관한 전작이 발표된 후 약 50년 만에, 작가는 다시 한 번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아름답고 서글픈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별난 친척들은 헤아릴 수도 없는 먼 옛날의 추억을 함께 나누지만 사실 이 모임에는 슬픈 목적이 있다. 이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 저택에서 ‘아라치’라는 거미를 애완동물로 기르며 살고 있는 어린 티모시는 이 이상한 모임에 참석한 모두와 만나게 된다.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가족들이 거두어 준 덕분에 함께 살게 된 티모시의 눈으로 바라본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가족들의 특징들은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탄생한 개성 넘치는 독특한 인물들, 불멸의 존재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

이 집의 딸인 세시는 침대에 누워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혼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자유롭게 들어가 상대방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 그녀는 이 능력을 활용해 관찮은 구혼자에게 늘 퇴짜를 놓는 젊은 아가씨의 몸에 들어가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건네도록 조종하며 뿌듯해한다. 푸르스름한 돛처럼 생긴 날개를 가진 아이들의 삼촌 에이너는 연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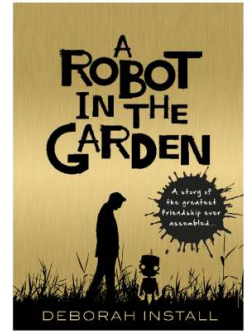
사이에 큼지막한 느낌표를 만들며 의기양양해한다. 거미줄로 된 드레스를 입고 파라오의 딸로 살았다는 할머니도 계시고, 연세가 4,000세가 넘지만 여전히 따끔한 잔소리를 해대며 젊은이 못지 않게 팔팔한 할아버지도 빼놓을 수 없다. 화기애애한 모임 속에 점차 드리우는 죽음의 그림자.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어쩌면 죽음이 누구보다 낯설지 않은 이 독특한 가족들도 이제는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

시처럼 서정적이고도 섬세한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등장인물들 각각이 펼치는 이야기가 서로 엮이면서 가족 전체에 찾아온 위기를 옛날이야기처럼 속삭이듯 전해진다. 삶에 대한 열망과 상실, 삶과 죽음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는 스무살부터 2012년 타계하기까지 500편이 넘는 단편과 장편 소설, 희곡, 시를 발표한 작가다. 주요 작품으로는 《화씨 451》, 《화성 연대기》, 《밤을 켜는 아이》, 《일러스트레이티드 맨》 등이 있다.

제목 : A ROBOT IN THE GARDEN
가제 : 마당에 나타난 로봇
저자 : Deborah Install
출판사: Transworld
발행일: 2015년 4월 9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아무런 열정 없이 빈둥대며 살던 삼십 대 남자, 그에게 찾아온 꼬마 로봇과의 우정

어느 날 집 마당에 나갔는데 한 구석에 로봇 하나가 서 있다면? 늘 집에서 게으른 나날을 보내던 서른네 살의 벤 챔버스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을 닮은 망가진 로봇과 벤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흐른 미래. 바리스타 아내를 둔 벤은 원래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꽤 많은 돈을 물려주신 후 든든해진 은행 잔고를 핑계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아내 에이미도 돈을 벌고 있으니, 벤은 자연스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점점 게으른 생활에 익숙해졌다.

별다른 것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집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마당 버드나무 아래에 작고 지저분한 로봇 하나가 앉아 있었다.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친숙한 존재로 자리를 잡고,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로봇에게 청소나 운전, 정원 돌보는 일을 맡기는 집들도 많은 시대였다. 에이미는 갑자기 나타난 작은 로봇에게 집안일을 맡기자고 제안하지만,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벤이 있는데 굳이 로봇이 할 일은 없었다. 결국 에이미는 쓸 데도 없는 낡은 로봇은 고물상에 갖다 버리라고 말한다. 벤은 로봇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말이나 걸어볼까 싶어 문득 인사를 건넨다. “안녕?” 그러자 로봇은 한바퀴 휙 돌더니, “탱! 탱, 탱!”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름이 ‘탱’인가? 어쩌다 이름까지 알게 된, 말도 할 수 있는 로봇을 그 누가 쉽사리 고철로 내다버릴 수 있을까?

별난 모형 속에서 사람보다 순수한 로봇이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고집어내는 마법 같은 이야기

직업도 없고 함께 키울 아이도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집에서 빈둥대며 살던 벤에게 그럴지 않아도 단단히 질려버린 에이미는 망가진 로봇 하나 버리지 못하는 그를 보며 결국 화가 폭발하고 그를 떠나고 만다. ‘탱’과 덩그러니 둘만 남은 벤은 로봇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을 찾아가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목적지는 로봇이 만들어진 공장 소재지로 확인된 캘리포니아인데 그곳에 가려면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늘 신이 나서 까부는 로봇을 데리고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그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벤과 탱의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 속에서 결국 온 지구를 누비는 정신 없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낯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둘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튼다. 과연 망가진 탱은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지

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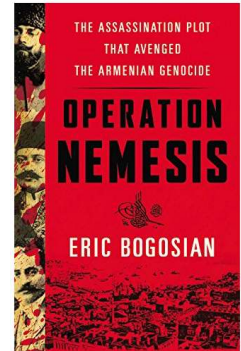
‘인공’ 지능이 사람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막힌 이야기인 이 소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꼬마 로봇 탕이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감성으로 벤이 잊고 지내던, 혹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황당한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소하지만 재밌는 에피소드와, 작가의 영리한 유머가 어우러져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데보라 인스톨(Deborah Install)은 아주 어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 여덟 살에 첫 작품을 출판사에 보낸 기억도 있다. 어른이 되어서는 디자인 회사와 마케팅 업체의 카피라이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위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OPERATION NEMESIS
가제 : 작전명 네메시스
저자 : Eric Bogosian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5년 4월 2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역사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터키 땅에서 50만 명 넘게 희생된 아르메니아인들, 그리고 피의 복수

1921년, 스스로 애국자를 자칭한 아르메니아인들이 모여 터키 땅에서 백만 명 가까이 희생된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복수를 시작한다. 비밀리에 시작된 이 작전은 복수의 신의 이름을 따서 ‘네메시스’로 불리며, 수년에 걸쳐 대학살을 자행한 터키 지도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암살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 기밀작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슬람 교도가 대부분이던 오스만 제국, 그들의 땅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은 이류 시민으로 취급 받으며 온갖 차별을 당했다. 세금도 더 내야했고,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업무도 처리할 수 없었으며 결혼도 제약을 받았다.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를 바라던 터키의 젊은이들은 ‘청년 터키당’을 조직하고 ‘아르메니아 혁명동맹’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타파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두 조직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청년 터키당은 사실 자신들의 땅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서서히 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 터키당원들이 조직한 ‘통일진보위원회’가 마침내 터키 전체를 지배하면서 마침내 과거 술탄들이 지배하던 시대만큼 잔혹하고 무자비한 정부가 탄생했다.

제말 파샤, 탈랏 파샤, 엔버 파샤까지 세 명의 인물이 이끌던 통일진보위원회에서 민주주의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1915년 4월 말, 저명한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이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이 대학살의 서막이었다. 히틀러가 남긴 유명한 말인 “그 누가 아르메니아인들을 기억할까?”로 알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학살과 고문, 국외추방이 제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쟁범죄 재판을 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책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실제 생존자 소고몬 테흐리리언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민족을 대신해 복수에 집착했던 한 젊은이의 눈으로 잃어버린 아르메니아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잔혹하게 희생된 민족의 복수를 꿈꾼 아르메니아 젊은이들의 기밀 작전, 그동안 감춰진 사건들

1919년, 아르메니아 혁명동맹은 잔혹한 살육을 자행한 터키의 주동자들을 찾아서 없애는 ‘특별 작전’을 계획하고, 네메시스로 이름 붙인 이 기밀 작전의 실행을 승인한다. 테흐리리언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파샤를 찾아내 암살하는데 성공하고, 전쟁범죄 재판에 당당히 서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맞이했던 처참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저자는 일그러진 터키 역사의 한 장면을 20세기의 시각에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하면서 현재 터키의 정치적인 모습과 잔혹했던 과거 역사를 함께 이야기한다.

힘 없이 부당한 살인을 당하고 민족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아르메니아인들, 그들이 전쟁 후 시작한 암살 사건, 그 어두운 피의 복수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실상과 잊혀진 진실을 일깨우고, 암살 작전을 이끌었던 이들이 잃어버린 정의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 발휘한 용기와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직까지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금기처럼 여겨지는 터키에서, 작가가 여러 대륙을 돌며 수년 동안 연구하고 축적한 자료들로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악의, 복수, 폭력의 대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에릭 보고시언(Eric Bogosian)은 극작가이자 소설가, 배우로,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연극 ‘Talk Radio’로 풀리처 상, 토니 상 후보에도 올랐다. 연극 작품이 영화화되면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작품으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MEASURE OF CIVILIZATION

가제 : 문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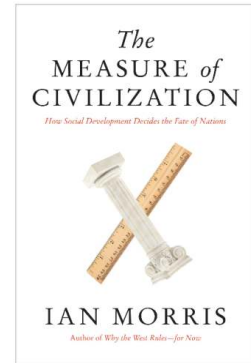
저자 : Ian Morris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년 2월 2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



인류 문명사회의 발달 역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표로 표현한 독특하고 참신한 분석

문명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서구 사회는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격렬하게 이어져왔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참신한 방식을 소개하고, 한 사회의 성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정량평가를 통해 결과를 지표로 나타내는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를 기점으로 1만 5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나타난 사회적 발달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구 사회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과 21세기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저자는 전작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에서 서양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에 1만 5천년의 세월 동안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설명했고, 방대한 시간에 이루어진 변화를 비교 평가하여 어떤 요소가 문명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한 창의적인 분석으로 호평 받았다. ‘역사의 진화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그의 분석 방식은 인류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분석 범위를 더 확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교한 수학적 모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처럼, 역사적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추정하는 방식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접근법이라 할 만 하다.

인류 사회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고, 사회 발달에도 인류의 진화 과정처럼 발달하거나 멸종되는 요소들이 있다. 저자가 인류 역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분석한 변수는 네 가지다. 역사의 ‘근간’이 되었다고 설명한 1인당 에너지 수확량, 사회 조직, 정보기술, 전쟁 수행 능력으로, 모두 UN의 인간개발지수를 참고하여 지정한 변수들이다. 저자는 이 변수를 토대로 ‘사회개발 지수’를 도출했다. 역사를 실험실로 삼아 발전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9세기 유럽의 학계에서 자주 다루어진 주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생명체의 진화를 지리학적인 연대순으로 연구한 찰스 다윈의 방식과 고대 법률로 인류의 조직체계를 분석한 헨리 메인의 연구 결과, 역사의 비교분석법을 확립하여 사회학, 경제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분석 등 옛 학자들의 연구와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함께 제시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의 패턴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통찰력

인류 개개인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이야기나 아이디어, 인류가 만든 조직, 역사적 경험이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고민한 주제다. 그러나 문화만으로는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저자는 이 궁금증을 문화 대신 세계가 겪은 현실 그 자체,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집단 행동(사회학), 지역(지리)이라는 요소를 토대로 풀어보고, 인류 문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한편 그 각각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지역의 문명, '개혁'을 주도한 통치자로 꼽히는 이집트의 이크나톤과 네페르티티 여왕의 업적 등 종종 그리스의 시각에서 바라본 발전 역사만 기록되던 이집트 문명의 독특한 특징과 영향 등 저자는 분석 방식과 더불어 분석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역사 연구와 차별되는 면모를 보인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느끼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이언 모리스(Ian Morris)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고전학과 역사,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등 11권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80편 넘는 글을 기고했다.

제목 : GREAT MYTHS OF THE BRAIN

가제 : 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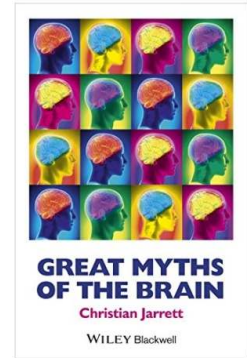
저자 : Christian Jarrett

출판사: Wiley-Blackwell

발행일: 2014년 11월 1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과학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는 뇌 영상 분석 결과들, 과연 믿어도 될까? 뇌에 관한 과장된 정보들과 오해

“설탕을 많이 먹었더니 애들이 너무 난리법석이네!” 부모들 사이에서 이 정도 대화는 일상화 된지 오래다. 설탕이 무슨 상관이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사실 설탕이 아이들의 과잉행동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자리잡았을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과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한 뇌에 관한 흥미로운 헛소문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파헤친다. 요즘 언론에서는 뇌 스캔으로도 불리는 뇌 활성화에 관한 영상분석 결과에서 행복, 사랑, 분노 등 인간의 갖가지 감정들이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좌우되는지 밝혀졌다는 기사가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사람들은 뇌 기능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확인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장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지 신경과학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의 뇌를 둘러싼 50가지가 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분석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입부에서 뇌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특징과 기능, 중요한 용어를 살펴본 후 1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해왔는지 소개한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뇌를 분석하려고 시도된 다양한 노력들, 과거 모두가 굳게 믿었지만 오류가 확인된 정보들, 그리고 틀린 정보임이 드러났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에 남아 여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전두엽 절제술을 비롯해 정신의학계, 신경의학계에서 과거에 사용되던 각종 뇌 치료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철재 봉이 뇌를 곧장 관통하고도 살아남은 19세기 한 철도 노동자, 즉히 100명이 넘는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이 진찰한 기억상실증 환자 헨리 몰래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뇌 분석과 연구, 치료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일상생활에 침투한 뇌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는 책

4장은 오래 전에 등장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뇌에 관한 오해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우뇌를 쓰는 왼손잡이가 더 창의적이라던가, 인간은 뇌 기능을 10 퍼센트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던가, 하

는 이야기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됐는지 살펴보고, 우리 뇌는 이런 헛된 주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섬세하고 매력적인지 설명한다. 5장에서는 뇌의 물리적 구조에 관한 오해로 넘어가서, ‘뇌는 클수록 능력이 높다’는 등의 오해를 풀어본다. 6장은 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파헤친다. 특히 최근 자주 등장하는 뇌 영상이 정말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 인터넷이 정말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보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7장에서는 뇌가 주변 세상, 그리고 인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본다. 인간에게는 오감만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오해까지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시하게 여겨오던 생각을 뒤집는 결론을 볼 수 있다. 마지막 8장에서는 뇌 손상과 신경학적 질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또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간질과 기억상실을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뇌 질환과 증상에 대한 오해를 살펴본다.

충분한 연구 결과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와 틀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한 책으로서, 언론에서 다루는 갖가지 정보 중에서 과장된 내용과 주장을 가려낼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들이 인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관인 뇌를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천 제렛(Christian Jarrett)은 마음, 뇌, 행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심리학자로, 영국 심리학회가 운영하는 ‘리서치 다이제스트(Research Digest)’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관리했다. <Wired>의 뇌 정보에 관한 블로그 ‘브레인 왓치(Brain Watch)’와 <타임>지, <가디언>, <BBC 포커스>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저서로는 《The Rough Guide To Psychology》, 《30-Second Psychology》 등이 있다.

제목 : PHOTOGRAPHY CHANGES EVERYTHING

가제 : 사진이 변화시킨 모든 것

저자 : Marvin Heiferman

출판사: Aperture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분량 : 356 페이지

장르 : 사진



사진이 인간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끼친 커다란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도

사진은 우리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책은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이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 시작한 사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사진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이 축적한 수백 편의 자료들을 토대로 사진에 담긴 정보와 가치,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진만의 영향력,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 경험과 사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제안하여 시작된 이 연구 사업은 사진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사진을 보다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진은 그 특성상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순간적으로 담아내야 하기에 시간을 정지시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며,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피사체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을 통해 우리의 시각, 신경, 지성, 감정, 본능, 신체 반응을 이끌어낸다. 또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는 사람의 엄격한 평가와 해석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사진이 공공의견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진을 넓게 분석해서 그 활용성과 힘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고, 이 책에서는 사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바꾸어놓았는지, 그리고 전문 분야의 측면에서는 사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책은 크게 여섯 장으로 나뉘며 각 장마다 사진이 우리가 바라는 것, 보는 것, 우리 자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1장 '우리가 바라는 것'에서는 사진이 우리가 획득한 것을 증명하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희망을 표시하는 깃발처럼 작용하면서 우리 각자의 요구를 정의하고 그 욕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주는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 즉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서,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또는 수많은 이유로 우리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은 대상과 사건을 사진 덕분에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우리의 시각적 경험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 인식의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극제가 된다.

사진이 바꿔놓은 우리의 희망과 시각, 우리 자신, 우리가 하는 일과 가는 곳, 기억

3장 '우리 자신'에서는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사진에 찍히는 경험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자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해주는 사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4장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사진이 우리가 이미 한 일을 기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결정한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사진은 각자의 호기심, 충동에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사진으로 남은 이미지는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학습,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준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5장 '우리가 가는 장소'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나 전 세계 어디든 데려다주는 사진의 힘을 살펴본다. 세계 곳곳 지리적인 장소는 물론이고 사람의 신체 곳곳, 해저, 화성까지도 사진을 통해 얼마든지 가볼 수 있다. 마지막 6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류투성이에 변하기도 쉬운 우리의 기억처럼, 사진 역시 그저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보다는 우리 머릿속에 간직한 기억을 다시 창조하고, 교란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 여러 박물관과 과학 센터에 소장된 놀라운 시각 자료들을 만나볼 기회이자 사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지식, 정보, 의견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00장이 넘는 사진과 여러 전문가, 작가, 발명가, 그 밖에 주요 인사들이 남긴 짙은 글 100편으로 정리된 이 정보들은 독자들에게 사진으로 남은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시각 문화의 전환기로 불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 생활, 사진의 기능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마빈 헤퍼먼(Marvin Heiferman)은 큐레이터이자 작가로 여러 박물관, 화랑, 출판사 등에서 사진이 예술과 시각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제목 : HEALING HERBS

가제 : 힐링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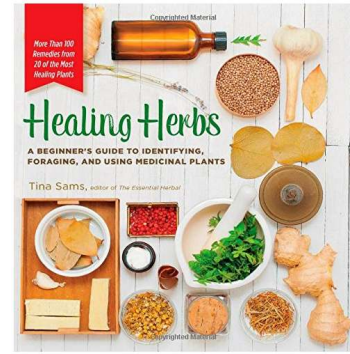
저자 : Tina Sams

출판사: Fair Winds Press

발행일: 2015년 3월 1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실용, 건강



민트, 생강, 바질 등 엄선된 20종 허브의 모든 것, 상세한 정보와 활용법이 담긴 유용한 안내서

허브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쓰임새 많은 허브 20종을 상세히 소개한 이 책에는 들판의 울타리나 목초지, 야생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잡초로 여겨지기도 하는 풀들을 비롯해 잘 알려진 허브까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선정된 각 허브의 의학적인 효능과 함께, 식용 허브와 약용 허브의 전통적인 활용 방법과 식물이 지닌 효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집에서 직접 허브를 길러보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값진 팁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유용한 허브 활용법도 볼 수 있다.

허브를 활용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에 관한 정보는 맨 처음 사용되던 그 때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이후 충분한 근거가 확인된 지식이 더해진 경우가 많다. 먼 옛날부터 동물들과 인간은 몸이 다치거나 아플 때 낫게 하는 용도로 자연스레 주변의 식물들을 활용했다. 그러나 의학이 현대화되면서 각 마을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약초 전문가들은 서서히 잊혀졌다. 다른 전통적인 치유법들도 마찬가지로, 현대 의학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1950년대부터 약초꾼들도 설 곳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초로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 계속 번성했고 현재 이 전통을 보존하려는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도 아직 생존하는 허브 전문가들의 지혜와 방식을 배우려는 연구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허브를 이용하는 전통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며 이어졌다. 다행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세계 곳곳의 허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식물을 직접 만지고 다뤄보는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책은 식물을 사랑하고 허브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브에 대해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허브의 사용 역사, 가정에서 허브를 기르는 법, 허브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팁

허브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요리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약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류별로 어떤 조합이 올바른지 배우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종류의 허브 목록을 보고 엄두가 안나는 기분을 느끼게 마련이다.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음 하기도 힘든 이름을 가진 수백 종의 식물들, 이 중에 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대체 어떻게 구

분해야 할까?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 방식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허브 전문가들은 10가지 내외의 허브를 주로 사용한다. 초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 허브를 적시에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양톱풀, 마늘, 금잔화(카렌둘라), 라벤더, 캐모마일, 민트, 바질, 시계꽃, 질경이, 장미, 라즈베리와 블랙베리, 세이지, 엘더, 별꽃, 컴프리, 민들레, 타임, 썬기풀, 향제비꽃, 생강까지 직접 엄선한 20종의 허브에 대해 각 장에서 하나하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가정에서 허브를 이용해 연고나 립밤, 로션을 간단히 만드는 방법과 허브티 맛있게 만드는 법, 말린 허브와 생 허브를 다루는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들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저자 소개>

티나 샘스(Tina Sams)는 < The Essential Herbal>의 편집장으로 수년 동안 허브 도소매 업계에 종사하다가 다양한 정보를 모은 잡지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제목 : BALD IS BETTER WITH EARRINGS

가제 : 대머리엔 귀걸이가 어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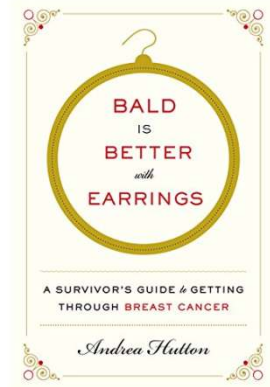
저자 : Andrea Hutton

출판사: HarperWave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유방암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과 친구들, 유방암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친절함 안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끝에 살아남은 저자는, 유방암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린 모든 여성들을 위해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치료가 끝난 이후의 삶까지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정리한 실용적인 지침서를 완성했다.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친구나 자매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제공하고, 어쩔 수 없이 엄습하는 끔찍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의사에게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온갖 책이며 기사, 웹사이트 게시물을 게걸스레 탐독했고, 알고 지내는 사람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자료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괴로운 통증과 불편한 몸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령은 없을까? 치료에 들어가면 얼마나 피로하고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이며, 어떤 식으로 빠질까? 저자는 아무 준비 없이 당혹스럽게 겪어야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비록 자신은 미리 알지 못했지만 알았더라면 좋았을 정보를 모아 다른 환자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자신과 같은 유방암 환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 지침서를 완성하게 된다.

이 책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사실, 알아야 할 사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유머와 감동이 가득한 저자의 경험담과 값진 정보를 통해 독자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 받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벌어질 일들과 중요한 순간 경험하게 될 심경의 변화, 감정의 흐름에 관한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설명을 듣게 된다. 저자는 마흔 한 살이던 8월의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서 콩 한알 만한 크기의 단단한 멍울이 만져졌다. 의사는 그냥 물혹이라고 했지만, 이상하다 싶어 자꾸 만져보니 통증도 느껴졌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방촬영검사를 예약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책 서두에서 저자는 치료를 마치기까지 겪은 모든 과정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하고, 각 장마다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검사와 그 결과들,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화학요법, 마침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되는 일, 방사선 치료, 또 다시 시작된, 그러나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일상', 약물 치료와 치료 완료단계까지의 일들을 총 10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진단, 검사, 수술, 치료, 머리가 빠지는 순간, 약물 치료 단계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조언과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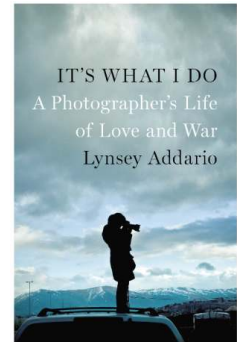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이 의학적인 전문 서적처럼 유방 조직이나 화학요법에 쓰는 약의 화학적 성분을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아주 세세한 일상적인 변화나 경형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돌이켜보았을 때 자신이 처음 진단을 받고 정보를 찾아헤매이던 그 순간에 찾았으면 좋았을 정보,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한다. 괴로운 화학요법을 이겨낸 요령, 약을 잊지않고 꼬박꼬박 잘 복용하는 방법 등 치료 각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용한 조언들이 마치 친한 친구가 이야기해주듯 관심과 애정, 열정이 가득한 저자의 설명으로 전해진다.

<저자 소개>

안드레아 허튼(Andrea Hutton)은 듀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모든 치료를 마쳤다. 마케팅, 경영 컨설턴트로도 활약 중이다.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제목 : IT'S WHAT I DO
가제 : 나의 일
저자 : Lynsey Addario
출판사: Penguin Press HC
발행일: 2015년 2월 5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2014년 12월 3일 뉴스레터에 소개된 종군 사진기자의 회고록인 IT'S WHAT I DO: A Photographer's Life of Love and War 가 영화화될 예정이다. 워너브라더스 사가 뜨거운 경매 끝에 계약을 성사시켜 <아메리칸 스나이퍼> 제작사인 Andrew Lazar Producing의 제작으로 스티븐 스피버그가 감독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을 맡게 된다.

저자인 Lynsey Addario의 작품은 The New York Times, National Geographic, and Time Magazine에 정기적으로 실리고 있으며 그녀는 MacArthur Fellowship을 수상, 2009년에 <지니어스 그랜트>를 수상하였고 2008년 그녀가 찍은 탈리바니스탄의 사진으로 뉴욕타임즈 보도팀과 함께 2009년 풀리처 국제보도 상을 수상했다. 2010년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가 뽑은 20명의 여성 목록에 들기도 했으며 2014년에는 American Photo에서는 그녀를 2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가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 http://www.nytimes.com/2015/02/01/magazine/what-can-a-pregnant-photojournalist-cover-everything.html?_r=1
- <http://www.curtisbrown.co.uk/news/jennifer-lawrence-and-steven-spielberg-attached-to-the-film-adaptation-of-lynsey-addario>
- <http://www.theguardian.com/film/2015/mar/03/steven-spielberg-jennifer-lawrence-war-photographer-lynsey-addario-its-what-i-do>
- <http://deadline.com/2015/03/steven-spielberg-jennifer-lawrence-war-photographer-1201384706/>